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 투쟁대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제목	: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투쟁대회 (총 21 쪽)
문의	: 장서연(010-2435-1980, lgbtqact@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하여 총 78 개 인권시민단체가 함께 결성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024. 5. 17.(금) 11 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날 19 시에 보신각에서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의 슬로건 아래 투쟁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본 집회와 을지로 ~ 종로 일대 행진으로 진행된 투쟁대회에는 약 500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연대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1990. 5. 17.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로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이날을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냅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중심으로 매년 공동투쟁단을 결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4. 기자회견과 투쟁대회를 통해 공동투쟁단은 21 대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고 곧 개원을 앞두고 있는 22 대 국회가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일시 : 2024. 5. 17.(금) 11:00

장소 : 국회 의사당 앞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진행 :

*사회 - 소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행동 알)

*발언

1. 혼인평등법: 류민희(모두의결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연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3. 차별금지법: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코지(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핑통)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혼인평등법: 류민희(모두의결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세요.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에서 활동하는 류민희입니다.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기념하며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알려진 성소수자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는 박탈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법적인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성소수자와 동성 커플과 부부에게는 배제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과 삶에서의 제한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여정에서 지난해에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2월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5월 국회에서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는 혼인평등법 최초 발의를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이제 이 결실을 이어 대법원은 계류 중인 건강보험소송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는 혼인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5월 30일에는 제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됩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혼인평등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작년 11월 22일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울 광화문, 보신각, 종로에서, 대구, 부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의 직장인이, 길을 가던 중년 남성이, 젊은 동성커플이, 길을 멈추고 기꺼이 서명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한국에서도 곧 되겠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한국 사회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소수의 정책결정권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차별과 배제를 이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평등을 위해 싸우며 여러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혼인평등을 향한 길에서 얻은 경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줍니다.

사랑이 차별과 배제를 이기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정부는 동성혼 법제화, 혼인평등 보장하라!

22대 국회는 동성혼 법제화 실현하라!

모두의 힘으로 동성혼 법제화 쟁취하자!

감사합니다.

#발언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연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팀 활동가이자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여성인 이연수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제정해야될 정도로 성소수자 혐오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혐오는, 성소수자를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말로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혐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그러한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트랜스젠더에게 차별이 되는지, 트랜스젠더를 동료시민으로 존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배워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과 불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염색체나 외부성기만을 가지고 낙인찍혀 버린 성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정체화한 이후부터는 매 순간이 투쟁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회사,병원,은행,관공서,호텔,화장실 등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이분법은 바로 법적인 성별로 유지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정받은 성별을 가지고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순간을 매번 마주해야 합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성별인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별인정법은 트랜스젠더가 성기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를 바꿔야만 트랜스젠더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기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있고, 성기수술을 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고 확인받지 않듯이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성별인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오

#발언 3. 차별금지법: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은 오늘은 저 역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그리고 22 대 국회 시작을 2 주 앞둔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힘있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 존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고 낙인 찍어온 오랜 과오를 바로잡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쓰이기까지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저항했던 성소수자들의 투쟁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과오 속에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깐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마치 평등이 차등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성소수자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존재는 그 자체로 부정당할 수 없고 존엄은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지 17 년, 잘못 끼워진 그 첫 단추를 성소수자 시민만이 아니라 정치가, 이 사회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진보적 가치라는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존엄과 평등은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의 토양으로 삼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 대에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22 대에는 제대로 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 종교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정치를 멈추고 22 대에는 존엄과 인권을 바탕으로 진짜 보수다운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양당만이 아니라 군소정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아니라 존엄과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쓴 정부로 기록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멈춘 적이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싸워서 길을 만듭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에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새로이 쓰는 역사를 만들어봅시다. 투쟁!

#발언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코지(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핑동)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핑동의 활동가 코지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아마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너 설마 여자 좋아하냐? 너 그런거냐?”라고 놀림 받는 스포츠의 바지교복을 입는 학생의 모습을요, 남자답지 못하다며 “게이나?”라는 말을 듣는 학생들을요. 그러면 혹시 그 말은 잘못되었다고 제지하는 교사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그 행동은 분명한 괴롭힘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를 본 기억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말들을 들은 청소년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은 안녕한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차별해도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의회에서 빠르게 폐지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포괄적 성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모여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말해왔는데도 제도의 변화는 이처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반성소수자 혐오단체의 반발과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부족을 꼽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시민사회가 무르익혀나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들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제 역할 하지 않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긴급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며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동안 지금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과연 안녕할까요?

핑동에 오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차별적 학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말한 아웃팅 문제,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성소수자 정체성을 커밍아웃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도 잘못이 있다며 그냥 조용히 학교다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성소수자 학생.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보호자에 의해 전환치료를 하는 곳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청소년, 한없이 높은 법적 성별 정정의 문턱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이처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이 외면해 온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때도, 지금도 성소수자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 22 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기엔 궁색해진 세상입니다. 10 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는 그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 삶의 문제입니다.

이미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소수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차별 행정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적 학교 환경에서도 학교를 성소수자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교사에게 학급 규칙을 바꾸기 위한 편지를 쓰는 청소년, 학생에게 커밍아웃을 받은 뒤 성소수자 인권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앨라이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과 투쟁은 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30 년간 드러내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투쟁한 것처럼 끊임없이 성소수자 인권을 말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질 것입니다.

뭉개려 할수록 튀어오를 것입니다.

외면하려 할수록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변화를 맞이하십시오.

변화를 만드는 움직임에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5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1993년 초동회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지 30여년,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2000년 소규모로 시작된 제 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제는 수만명이,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소수자로 드러내며,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고, 시민들은 연대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각 지역에서 성교육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도서가 폐기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오랜 요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4건의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된 혼인평등법에 대해 국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을 빙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정치의 후퇴에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열어낸다. 그리고 여기 모여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를 선포한다. 이번 투쟁대회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에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오늘 모인 우리는 성소수자이자 지지자이다. 혐오의 피해자이자 구조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이다. 정치가 성소수자 인권실현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더 많이 모이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치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이 외치고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저녁에 이어질 투쟁대회, 행진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한 투쟁이자,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는 연대의 물결이다. 그렇기에 정치에 요구한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202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옹다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핑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코아그라운드,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랫폼 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흥반사 (총 78 개 단체)

● 투쟁대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보신각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진행 :

*본집회(19:00~20:00)

*사회 - 소주, 고운(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서

1.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박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3. 공연: 아네싸&초이프라이데이

4.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5. 견우(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6. 공동선언문 낭독

*행진(20:00~21:00)

보신각(종각역) - 종로 3 가역 - 을지로 3 가역 - 을지로입구역 - 보신각(종각역)

#발언 1.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완전한 평등

오늘의 메인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 모두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완전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달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무지개행동에서 주최한 상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의 한성 활동가님이 패널로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 소수자 학생 권리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한 줄의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통과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평등의 가치가 중요한 교육의 영역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특히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례가 아닌 법률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완전한 권리

법과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성소수자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왔지만, 아주 오랫동안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한 법과 제도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당하냐’는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차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학창시절에 성별이 구분된 교복이 죽기보다 더 입기 싫을 수 있고, 누군가는 40년 해로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모든 걸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투쟁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유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자신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지금, 그 누구보다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축제를 할 자유, 집회를 할 자유, 섹스 할 자유, 가족을 구성할 자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자유.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당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의 권리가 억압당하고 있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혐오로 덧 씌워진, 낙인을 벗겨낸 날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우리 앞에 놓인 낙인, 혐오, 차별의 두께가 결코 녹록하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한 편에 서서, 우리는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거죠.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2. 박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권활동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꼭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인권위에게도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부터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드물게, 거의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관한 실태조사도 서너 차례 했고, 또 내년에도 계획 중입니다. 물론 진정 사건을 통해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책과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 인권단체 같지 않게 결정도, 진행도 느려 터져서 여러분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큼 그 역할을 못했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인권위가 혐오차별반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오면서, 그 혐오차별의 중심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나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의 매일 보고 듣고 지냅니다. 그들의 말들이 대표적인 혐오와 저주의 말들입니다. 사랑하며 살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폭폭할텐데, 혐오와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보다는 당사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혐오와 저주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곳곳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그 분들에게 경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는 한때 정신질환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그 후 전 세계에서 매년 이날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짐의 일환으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칩니다. 나아가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90명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최근 1년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터넷 등 모든 일상에서 혐오는 촘촘하게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응답자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81.4%(480명)에 이릅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를 보면 재판에서 어떤 판사가 '동성애자는 트랜스젠더와는 달리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면 차별받을 일은 없지 않냐?'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지금 2024년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체성 때문에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진짜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용인되고 일상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도 국가와 지자체는 별 대응없이, 별일 없이 사는 이 나라가 정녕 '동료 시민'을 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같은 것도 법률 등으로 금지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성소수자 혐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권고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선언이라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건데 정부 차원의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비단 지금 정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3월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인권위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저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몇몇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내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도서가 아니라고 판정한 성교육 도서 67종 2,528권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2월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최근 2024년 5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별정정 신청시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금씩 걷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권고 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저들이 길거리에서 저주와 혐오를 퍼부을 때 우리는 묵묵히 관행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나아가 법률을 바꾸는 일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나눠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혐오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낼 때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고 연대하여 즐겁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곧 종로에서 을지로에서 열리겠죠. 우리 인권위원회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그 자리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양보할 수 없는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배웠습니다. 인권위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안녕하세요.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라고 부르려는 건, 동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맺어진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물로 모였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듯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선물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이며 우리의 복잡다기한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기여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우리를 삭제하거나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언어는 너무 얕아서 우리의 엄청난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언동에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은 혐오와 차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을 깨고 넘쳐흐르는 개성과 풍부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셉니다. 물론 혐오와 비하와 모욕은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 힘은 고통과 공포를 견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혐오세력은 극악 해한 악당이나 괴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일상이자 시스템으로 존재합니다. 이성애중심주의, 비장애중심주의 등 각종 중심주의와 차별주의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지배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반사적 적대와 악마화로 인해 강한 것이 아니라 지배에 맞서 인권이란 공통의 기반을 확인하고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인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혐오세력도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그 존엄'을 통해 그들이 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 존엄'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골라내고 내쫓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존재와 삶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키려는 의도로 존엄성을 운운합니다.

우리에게 존엄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혐오와 배제 때문에 해를 입더라도 우리 자신의 가치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실천으로 고양됩니다. 우리는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합니다. 주요한 억압 체계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단편적인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얼키고설킨 정치·경제·문화적

불평등에 반대합니다. 누구든 존엄한 일자리, 의식주, 교육, 보건의료 등에 보편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위해, 모두의 존재가 관찮은 것으로 느껴지고 초월적인 의지로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위해, 저마다 경험한 폭력을 더 넓은 맥락에 놓고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인식을 통해, 우리는 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숨찬 삶이지만 벽참 또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가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존엄성이란 공통의 토대 위에서, 인간성을 위협하는 공통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서로를 보살피는 공통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불복종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둘로 쪼개놓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성애거나 아니거나 식의 이분법의 틀에 맞출 수 없는 우리는 아주 놀랍도록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성적소수자를 위하는 듯 이용하는 교묘한 언어를 거부합니다. '힙하다'며 무지개를 상품화하고 광고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걸 거부합니다. 스타성 있고 도시적이며 세련된 존재들로만 우리를 재현하는 걸 거부합니다. 일상에서의 인정과 존중을 외면하고, 법과 제도에 평등을 기입하지 않으면서 취하는 관용의 시늉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정상성'이라는 불가능한 환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이상, 즉 누구나의 삶이든 존중받으며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앞장섭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반인권적인 구조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와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또는 가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구덩이는 깊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혼자 의지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밭줄을 던집니다. 서로를 단단히 연결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잡아당기고 매달리는 힘에 손이 갈려나갈 수도 있지만, 서로를 구덩이에서 빼내고 구축한 유대감은 구덩이를 메우고 새로운 집을 세울 힘이 될 것입니다.

#발언 4. 견우(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견우라고 합니다.

큐사인은 2024년 2월 발족한 신생 성소수자 단체로, 21개의 청년성소수자모임이 연대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큐사인은 매월 월례모임과 대표자회의를 통해 청년성소수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큐사인의 이름으로 하는 첫 발언을 아이다호 투쟁대회, 보신각에서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보신각은 매년 새해가 시작함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다양한 정계의 인사가 보신각에서 국민들의 한 해동안의 안녕을 빌며 종을 울립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이 곳에서, 함께 모인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종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퍼지길 바라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 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 집회의 슬로건은 '모두의 자유 평등 정의'입니다.

모두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말하는 모두에 나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을까

모두에게 자유로워야 할 공공 교통에 장애를 가진 이는 포함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화장실을 비시스젠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모두에 내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모두의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칠 때입니다.

청소년이고 청소년이었던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겪은 혐오 발언, 폭력은 우리를 학교 밖으로, 가정 밖으로, 사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불안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스스로를 탐색하고,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아가 오롯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자유로이 받아들일 기회 없이 사회에 내몰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노골적 혐오와 미세공격을 겪으며 살아온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의 무게는 다른 이들에 비해 무거운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이성애중심주의의 시스젠더 사회에서 밀려나 다시 사회를 살아내야 하는 성소수자에게 차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성소수자에게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구직과 취업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감춰야만 하며,

가족을 구성할 당연한 권리조차 우리에게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평등하지 못한 과정과 환경 때문에
절망은 우리에게 일상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불행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없이 살아가는 세상, 혐오 없이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없는 세상, 이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성소수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모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 22 대 국회를 향해 성소수자 인권 10 대과제가 발표된 지금,
국회 앞에서 혼인평등법,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된 오늘.

우리가 연대로 이뤄냅시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합시다.

발언을 마치며 오늘 집회를 통해
모두의, 우리의 자유 평등 정의를 향한 큐사인을 외칩시다.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4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에서 새로운 운동과 희망, 그리고 변화를 움트웠다. 1990년대 중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트랜스젠더/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가 결성되었고, 2000년에는 제 1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2006년에는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운동, 균형법 추행죄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와 같은 반인권적이며 후진적인 정치적 조치를 목격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이러한 후퇴를 넘어서고 돌파구를 내기위해 캠페인조직 '모두의 결혼'을 선포하며 혼인평등 -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싸움을 전개한다. 또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균형법 92조의 6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성별의 법정인정에 관한 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열어낸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의 맞닿아 있는 이 위협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 강제적인 신체 침해가 필요 없는 성별 정정을 위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범죄화하지 말라.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 조의 6 을 폐지하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유지하는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하나. 우리의 권리를 교육하라.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라 불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행태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라.

하나.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개선하라.

하나. 혐오와 정치의 연결을 단절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개신교와의
결탁을 중단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라.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2024 년 5 월 17 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핑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코아그라운드,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랫폼 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흥반사 (총 78 개 단체)

(문서의 끝)